

제2회 여성제 기획안 ver 1.5

0. intro

길 위의 집에 존재함에 대하여
여성주의의 버전 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1. 왜 우리는 지금 여성제를 하는가?

이제, 움츠려들었던 어깨를 펴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자.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세상을 더듬어 보자.
서로에 대해 솔직한 목소리를 던지고,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보자.
이제, 큰 걸음으로 움직여 보자!

11. 현재 연대 안 여성주의자들인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95년 가을, 성정치 문화제 이래 우리들은 '여성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왔다. 99년 현재, 연대에는 다양한 정체성과 방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단위들이 7개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연대(延大) 여성주의의 역사는 '연대(連帶)'의 역사였다. 각기 다른 발판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하면서 남한 사회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 혹은 '여성주의'에 대해 교통하고 논쟁하면서 부대껴 온 여성주의자들. 그러나 지금 연대 여성주의자들은 이전과 같이 발랄하지 않다.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 총여학생회를 잡은 99년 이후, 연대 여성주의자들은 물질, 심적으로 탄압받고 부딪혀 온 몸에 피멍이 들어 버렸다. 두입술과 생활도서관은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빈민들이 철거를 당하듯 11대 총여학생회에 의해 한 밤중에 강제로 철거당하였고, 여성자치단체들은 11대 총여학생회가 당선 초기에 단언했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한참을 매달려야 했다. 공간은 없고, 재정적인 지원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를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그동안 가져왔던 '자치'에 대한 고민에 의심을 품을 지경까지 내몰렸다. 또한 기독교 복음주의가 총여학생회를 통해 여성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11대 총여학생회의 탄압 속에서 진전되지 못하였다.¹⁾ 이들은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들은 '여성주의의 적자'인데, 이는 11대 총여학생회를 위시한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 선거 당시나 총여학생회 상을 드러낼 때 언제나 여성주의 세력에 '대항하는~'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은 여성운동의 내용을 스스로 구성한다기 보다는 여성주의에

1) 현재 기독교 복음주의를 표방하며 정치적인 활동을 꾀하는 이들은 95년 성정치 문화제 시기에 정치성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성정치 문화제 당시 붉은 십자기를 들고 구조물을 부숴 버림으로써 처음 그들의 정치성을 강변하였다. 그 이후 97년 총학선거에 '대학다움에 대한 진실'이라는 선본을 구성하여 당선되었으며, 97년 10대 보궐 선거 당시 '섬김의 여성상'을 지향하는 '참 여성의 바람소리'라는 선본을 내었고 그 이후 총여학생회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현재 11대 총여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다.

대한 반대세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다. 여성주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분석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현재 여성주의의 위치를 보는 데에 중요한 일이다.

연대 내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하는 7여개의 여성모임 중 안정되어 있는 공간은 전무한데, 이는 여성 모임들이 활동을 한 기간이 3~4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학내 구성되어 있는 학생자치라인(자치 모임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학생들의 선거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학생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그나마 단대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여성모임들의 경우는 단대 학생회에 인준을 받은 곳도 있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활동하는 여성모임들의 경우,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안정화되기 힘들며, 운동체를 지향하는 여성 모임의 정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하고 인준을 받는 것을 결심하는 것 또한 힘든 일이다. 여성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총여학생회의 지원을 통해 여성운동을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나 11대 총여학생회의 입장이 반(反)여성주의라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성모임들이 재정이나 공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활동을 전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현재 총여학생회가 여성자치단체들의 공동 공간을 만들겠다는 식의 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약속들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아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연대 내에 여성주의자들에게 닥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공간이나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여성주의에 대한 언어화 혹은 실물화 작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것이다. 96~97년에 나왔던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나 운동의 방식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주의적인 언어를 구축하는 작업 또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용 또한 여성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오는 성폭력, 여성노동, 매매춘, 미인대회, 성정치의 시리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초기에 '여성주의'를 삶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던 것과 달리 현재 여성운동단위에서 문제제기하는 문제들은 '여성'과 직접적으로만 연관되는 주제로 축소되고 있어 '여성주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주의'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것과 '여성주의'를 실물화하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 여성운동 단위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학기 동안 '여성주의'와 관련해 학내에서 눈에 보이는 흐름들이 그다지 없었으며, 학내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던 것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적 연대에 대한 고민의 부재. 연대에 대한 문제의식의 상실. 각개격파의 현실.

12. 현재 연대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학기 의·치대를 제외한 단과, 학과들을 6개의 계열로 통폐합

광역화로 수시모집이 진행, 기성회비 문제

자치활동의 축소, 반면에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활동의 영역을 찾아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

13. 여성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성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연대의 길을 모색했던 97년, 연대 여성자치단체들이 여성자치연합을 발족하면서 제1회 여성제를 개최하였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이라는 모토로 진행되었던 여성제는 다양한 여성모임들의 '여성주의'가 교류하고 연대한 공간이었으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의 동등한 연대를 실험했던 공간이었다. '공존하는 다양성, 여성적 연대를 예감한다'라는 슬로건 또한 이러한 여성제의 문제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성제는 여성자치단체들의 연대의 첫 산물이었으며, '다양성의 연대'를 '여성적 연대'로 등치시키면서 여성주의적인 연대를 고민하며 물화시키려했던 여성자치연합의 사업이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최한 여성제는 학내 산재되어있는 여성자치단체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동시에 여성주의의 중심인 '여성적 연대'의 문제의식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학기 여성자치단체들이 서로의 소통 공간으로 마련했던 여성자치연대 이후, 또 다른 '여성제'를 이루는 것을 여성자치단체들은 당연히 생각했다.(그리고 아무런 의심없이 공동의 사업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미 현재 우리가 서 있는 99년은 제1회 여성제를 개최했던 그 때와 거의 다르다.²⁾ 참여하는 모임의 수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연대에 대한 고민의 내용·정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였던 여성제는 현재 그다지 당연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9년 9월 현재에 여성제를 하기로 합의했던 것은 여성주의적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소망이다. 차별이 아닌 차이들이 수평적인 연대를 꾀하는... 기타 등등에 대한 가능성의 기대는 현재에는 현저히 감소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여성자치단체들 사이에 '여성주의'에 대해 고민한다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정도는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같이 하고 재정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의 주제로 여성제를 개최하는 것까지의 여성제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성주의자들의 연대를 당위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당위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대체로 일반적인 연대의 장점, 함께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는 폭이나 물질적인 힘들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대를 하면 얻는 것이 있는 만큼 잃는 것이 있으며,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도 있다. 그동안 여성주의적 연대를 고민해왔던 출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부분보다는 여성적 연대라는 관계맺기의 시도를 통한 여성주의에 대한 확장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2회 여성제를 맹목적인 여성주의적 연대의 물화된 모습으로써, 혹은 서로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상정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성적 연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 공간을 통해 각자 다른 상을 갖고 있는 연대에 대한 논쟁이 불붙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제는 그동안 '여성주의'에 대해 자신없음과 '여성주의의 확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세인들을 향해 직접적인 말걸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각기 다른 정체성과 위상을 갖고 있는 여성모임들이 서로의 '여성주의'에 대한 다른 관점과 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여야 하며, 이는 내부의 논쟁을 통해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발화할 것인가?

- 2) 제1회 여성제나 여성자치연합의 문제의식은 매우 급진적이기도 하였으나 도덕적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여성적인 연대에 대해 다양성의 연대로 표현하면서 여성자치모임들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연대를 꾀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의식이 당시 여성자치연합에 참여를 했던 모임들 간 혹은 모임 내에서조차 공유되고 논쟁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였고 그 외에 대다수의 이들에게는 사실상 당위적인 언술로만 자리잡혀 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공간의 의미를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 장소(place)에서 공간(space)로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공간에 정치성을 부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우리에게 의미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공간에 이름 붙이기, 즉 명명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광장 그리고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주목할 수도 있다. 여휴, 여자 화장실 문제.

연세라는 공간. 그 안에서 여성들의 공간

2018
201818

모토

슬로건

기조색, 모토 및 슬로건 도안

'공간'이라는 화두와 일련의 행사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전체 기획단 회의
전체주체(회계)
선전국
편집국
스폰서 담당

-특별 회의

개막제T

폐막제T

영화제T

강연T

yes, noT

구조물

만화전

도서전

[illegible]

토론박스

33. 구체적인 행사 내용

전체 실무

-전체주체의 역할

개막제

-걸개그림 (허리)

-일련의 행사

거리전

-yes, no!

-구조물 :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도서전 → 여학생 도서전

-토론 박스 → 가능한 것들, 전담한 사람들

-만화전 : 연세 공간 속에 교차되는 여성 → 만화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한 서술.

-선전전

영화제(2일간) → 여학생 공간.

가장에게 주제제안

강연 → 공동체, 개성 강연회와 강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

사이버 공간안에서 여성 정보의 구축

performance →

폐막제

사이버 공간 공연 (각각) →

자료집

-자료집

-리플렛

-포스터

선전

· 각 TV, 신문, 라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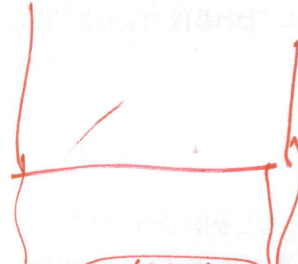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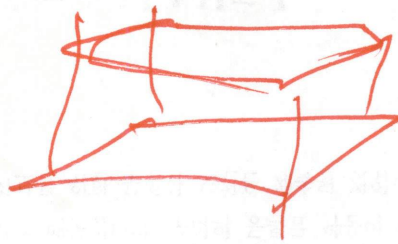
· 가요 PC, 배너, 개성제안

· 각 단상선전

· 양자화. (1인 대 performance)

34. 일정

[별첨문서] 각 행사 기획서 양식



→ 공연장 내부 : 스테이지와 관객. 대담상 장차라.

→ 학생회와 학생.

1인 → 무대 개성 그림.

⑤ 자기만의 바 ⑥ 자기만의 바

⑦ 자기만의 바

⑧ 자기만의 바